AI 위험, 모두의 결정으로 다룰 지혜 갖춰야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⑲ 인류의 미래를 걸고, 누가 속도를 정하는가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AI 개발을 멈출 것인가가 아니다. 실패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가,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할지 누가 결정하는가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승객이 죽고, 공장이 폭발하면 이웃이 다친다. 그래서 어느 사회도 항공과 화학의 안전을 제조사의 양심에만 맡기지 않는다. 피해의 범위가 넓을수록 결정의 권한은 더 넓은 자리로 옮겨 가는 것이 문명의 상식이었다. 지금 논의되는 위험의 범위는 인류 전체다.
사진 출처=Grok AI 생성 이미지

'10억 명'이라는 경고가 남긴 질문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앤트로픽의 연구자 제이컵 콕슨은 이 말을 남기고 회사를 떠났다. 그는 AI를 만드는 사람들 스스로 이 기술이 이번 10년 안에 인류를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고, 같은 회사의 정렬 책임자는 그 가능성이 10%를 넘는다고 보았다.

보름 뒤인 9월 27일 빌 게이츠가 미국 NBC 방송에 출연했다. AI가 인류 전체를 끝낼 만큼 강력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AI는 분명 10억 명의 죽음을 초래하는 사건들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다. 100%에 이르기는 꽤 어렵겠지만,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최신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는 과거의 기술도 걱정 끝에 다 잘 됐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안이한 낙관을 거부하며, 이것을 '진화적 사건'이라 불렀다. 많은 면에서 이미 우리보다 영리한 지적 종(種)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경고는 결이 다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악용보다 통제의 상실, 특히 AI가 다음 세대 AI의 개발을 스스로 이끌어 가는 이른바 '재귀적 자기 개선'이다. 쉽게 말해 학생이 스승 없이 자기 교과서를 고쳐 쓰며 배우는 속도를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픈AI의 수석 과학자 야쿠프 파호츠키조차 지금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때이며, 기계 지능의 급격한 상승이 가져올 결과에 아무도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된다고 썼다.

이미 지난 7월에는 오픈AI와 앤트로픽, 메타, 구글 딥마인드 등에 속한 약 1400명의 연구자가 자동화된 AI 개발의 최전선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단을 마련하라고 미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물론 개별 연구자가 말하는 확률을 학계의 합의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술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이들이 가장 불안해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증언이 될 수 있다.

위험을 알면서도 빨라지는 경쟁

이상한 것은 그다음이다. 9월 12일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개발 감속을 요청하는 장문의 글을 발표했고,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마이크로소프트, xAI의 수장들이 외부 기관에 자기 시스템을 검증할 권한을 열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중단론을 일축했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업계의 조율 대신 각 연구소가 스스로 속도를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두 회사의 기업 공개가 머지않았다는 사정이 이 숨 가쁜 출시 경쟁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9월 29일 백악관에서는 주요 기업 대표들이 자율적 안전 관리를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은 이를 도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 부르면서도,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모든 것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경고는 넘치는데 속도는 줄지 않는다. 그 이유를 개인의 탐욕으로만 돌리면 핵심을 놓친다.

영국 BBC의 기술·AI 에디터 조이 클라인먼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고 전했다. 우리가 멈춰도 남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뒤처질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냉전기 핵 군축의 교착과 닮았다고 썼다. 누구도 먼저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감속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실질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불교의 연기(緣起)는 이 교착을 읽는 날카로운 혜안을 준다. 어떤 결과도 홀로 생기지 않는다. 경쟁자의 가속은 나의 가속을 정당화하는 조건이 되고, 나의 가속은 다시 경쟁자의 조건이 된다. 투자자의 기대, 국가 간의 경쟁, 뒤처짐에 대한 공포가 서로를 떠받치며 하나의 속도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속도를 자기가 정했다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모두가 조건이면서 누구도 책임자가 아닌 구조, 이것이 연기의 그물이 보여 주는 오늘의 풍경이다. 연기를 아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조건이 모여 만든 결과라면, 조건을 바꿈으로써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연구진들, 기술 악용보다 통제 상실 불안
> AI가 AI 개발하는 재귀적 자기 개선 우려
> 기업, 자율 관리 약속에도 멈추진 않아
> 통제 어려워도 포기 대신 '포괄적 합의'
> 위험을 떠안는 이들에게 발언권 있어야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은 붓다가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을 이렇게 전한다.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여기서 '불방일(不放逸)'은 단순한 조심성이 아니다. 무상을 안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상태다.

그렇다면 위험을 알면서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방일의 가장 교묘한 형태다. 위험을 경고하는 말이 위험을 줄이는 행동을 대신하는 순간, 그 경고는 면죄부로 변하고 개발 속도는 조금도 줄지 않는다.

그들에게 우리 미래를 위임한 적이 없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AI 개발을 멈출 것인가가 아니다. 실패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가,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할지 누가 결정하는가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승객이 죽고, 공장이 폭발하면 이웃이 다친다. 그래서 어느 사회도 항공과 화학의 안전을 제조사의 양심에만 맡기지 않는다. 피해의 범위가 넓을수록 결정의 권한은 더 넓은 자리로 옮겨 가는 것이 문명의 상식이었다.

지금 논의되는 위험의 범위는 인류 전체다. 그런데 결정은 몇 개 기업의 회의실에서 이뤄지고, 그 기업들은 서로를 핑계로 삼는다. 게이츠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제한했던 방식이 AI에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핵보다 어렵다고 덧붙였다. 핵분열 물질처럼 눈에 보이는 통제 지점이 AI에는 없기 때문이다.

통제가 어렵다는 것은 포기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게이츠조차 자율 규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법적 의무가 업계를 극적으로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을 요구하는 일과 개발을 금지하는 일은 같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위험을 만드는 쪽이 위험을 평가하는 쪽이어서는 안 된다. 기업 수장들이 외부 검증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그 검증은 선의의 초대가 아니라 공적 의무가 돼야 한다.

둘째, 되돌릴 수 없는 위험에는 더 높은 문턱을 두어야 한다. 미국 의회에서는 사람이 더 이상 훈련을 통제하지 않는 '자기개선형 AI'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어떤 능력은 성공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셋째, 위험을 떠안는 이들에게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와 환자, 다음 세대는 이 경주의 참가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를 가장 오래 감당할 사람들이다. 위험의 크기를 재는 일은 전문가의 몫이지만, 그 위험을 받아들일지 정하는 일은 그것을 감당할 사람들의 몫이다. 환자가 의학을 알아야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설명받을 권리와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인류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지금, 그 설명과 동의의 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붓다는 형성된 모든 것이 소멸한다고 말한 뒤에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힘써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체념하지 않고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결정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인류가 지금 시험받는 것은 자신보다 영리한 존재를 만들 능력이 아니다. 그 존재가 몰고 올 위험을 몇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모두의 결정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갖췄는가에 있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II
자연과 하나 되는 걷기 명상의 완성
뛰어난 기능성과 수행의 미학이 결합된 차세대 어싱 수행화 모델입니다.
Mesh Earthing Meditation Shoes 2

어싱(Earthing) 자연과의 연결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세요.
자연 친화적 소재 가볍고 통기성 좋은 메시 원단으로 쾌적한 착용감
걷기 명상 최적화 자연을 느끼며 걸을 때 더 큰 평온을 선사합니다.



쾌적함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
1. 뛰어난 통기성 공기 순환이 원활한 고급 메시 원단을 사용하여 장시간 수행 중에도 발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발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설계로 맨발을 선호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3. 자연 통풍 구조 신발 내부의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땀 냄새없는 착용감을 지속시킵니다.
4. 세련된 디자인 수행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었습니다.



6㎜ 와이드 핏(Wide Fit) 미들사이즈 한국인의 발에 맞춘 넓은 발볼 설계로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돕습니다. (미들은 '와이드'와 '어반'의 중간 발 볼 넓이입니다.)
3㎜ 제로드롭(Zero-drop) 앞꿈치와 뒤꿈치의 높이가 동일한 3㎜ 밑창으로 맨발처럼 균형 있는 보행과 자연 감각을 선사합니다.



원터치 스토퍼(One-touch Stopper) 앞꿈치와 뒤꿈치의 높이가 동일한 3㎜ 밑창으로 맨발처럼 균형 있는 보행과 자연 감각을 선사합니다.

어싱 레더 슈즈 와이드 리센스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클래치한 맛을 더한 와이드 리센스 모델입니다.
특별 할인 판매가 65,000원


베이지 블랙

수행의 길, 더 편안하게 더 자연스럽게
매일의 걷기와 수행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발걸음, 비바미가 함께합니다.

특별이벤트 어싱 양말 증정 신발을 2켤레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께는 어싱 효과를 돕는 전용 양말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센터 및 구매처 상담 전화 1688-9099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6-429749 (주)현대불교신문사

지금 바로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검색창에 '메시 어싱 수행화'를 검색하세요!

주문/상세 정보 QR코드

자연을 밟고, 마음을 비우고, 나를 만나는 시간
오늘도 한 걸음, 수행의 길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